

●양계 기초 관리●

(6) 오물처리장을 설치해두자.

쓰레기장, 계분처리장을 멀리 두어 계분냄새, 파리 및 모기의 서식을 막아야 한다. 파리와 모기는 항상 병을 옮겨주는 매개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살충제를 자주 살포하고 또한 냄새제거제로 소석회를 뿌려야 한다.

(7) 배수시설(하수구)을 잘 만들자.

하수구에 물이 괴어 있으면 파리나 모기의 서식처가 될 뿐만아니라 계사내로 물이 스며들어 깔짚이 엉켜 썩으므로 콕시들팀의 오색스트나 기생충 알의 번식이 빨라진다.

계사내 깔짚관리는 소홀히 하기 쉬운데 잘못 관리하면 질병발생의 온상이 될 수 있다.

(8) 농장의 쥐를 잡자.

쥐는 사료낭비에도 큰 문제가 되지만 전염병을 빨리 전파하는 매개체이다.

밤이면 물통과 밥통은 쥐의 밥상이 되고 만다.

(9) 농장에 폐계매물장 설치.

폐계를 돼지나 개의 밥으로 이용할려면 가마솥을 설치해서 부패전에 빨리 처리토록하고 그렇지 못한 폐계는 매물장을 파서 묻어 버리도록 한다.

병계는 위험한 병을 폭발시킬 때도 있다.

(10) 계사입구에 소독저설치

출입인의 발은 미생물의 부착이 많은 부분이다. 그러므로 계사입구, 농장입구에 소독발판을 설치하고 자주 소독수를 갈아준다. 관리인이 소독발판을 밟는 버릇은 잘 이행되어야 한다.

(11) 부화장 선택을 잘하자.

오늘날 난계대성전염병이 심각하게 되어 있다. 특히 추백리, 살모넬라 및 호흡기성 마이코프라스마병과 간형백혈병은 닭의 경제문제를 좌우한다.

아무리 방역위생사항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병든 병아리를 구입할 때에는 모든 일이 수모로 끝난다.

(12) 양계장관리인들이 서로 신과 옷을 갈아입고 타 양계장을 방문하도록 노력하자.

(13) 공동방역위생

어떤 양계장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숨기고 있다면 이웃양계장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

서로가 공동운명으로 정보교환하므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 닭병의 발견

질병발생초기에 미리 발견하는 것은 양계인의 최고기술이다.

이것은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빠르고 닭상태를 자주 관찰하는 사람이 빨리 판단할 수 있다.

(1) 산란울갈소

갑작스런 산란 강하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징조이다.

매일 산란기록부를 점검하는 일은 닭상태를 관찰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연란과 기형란의 증가는 사료의 성분변화도 문제지만 수란관을 해치는 기관지염, 뉴켓슬병의 초기증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2) 식욕감퇴

사료급여량을 파악하고 사료를 먹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관리인의 책임이다.

모든 스트레스초기에는 닭의 식욕이 감소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잘 관찰해야 한다.

(3) 음수량증가 또는 감소

식욕이 감퇴되면 음수량도 감소하나 열성질환(뉴켓슬, 추백리, 청관병, 계티브스)은 음수량을 증가시킨다.

물론 여름철에 계사가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생리적현상이다.

(4) 계분상태

계분상태(연변, 굳은변)나 색갈에 따라 닭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보통 소화불

량변은 계분내에 사료가 많고 푸른색을 띄고, 장의 이상인 경우에는 점액변(콧물섞인 변)이 많다.

회충의 초기증상이나 콧수듬의 만성증상과 같은 경우에는 붉은 변이 섞여 있다.

그리고 백혈병과 같은 만성질환에는 녹색변을 누면서 바삭 말라있다.

(5) 안면의 모습

안면이 붓거나 눈물, 콧물이 나오면 계군전체를 주시해서 관찰해야 한다.

한두마리로 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계군에 퍼져나가는 호흡기질환이 문제이고 또한 안면에 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코라이자도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또한 얼굴에 좁쌀만한 알이 생기면서 원기를 잃으면 계두를 의심한다.

벼슬이 말라 위축하면서 닭이 마르는 경우는 만성질환(예, 간형 백혈병)이나 내부기생충을 의심한다.

(6) 밤에 계사를 순찰한다.

낮에는 닭의 숨소리를 듣기란 어렵다. 호흡기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밤이다.

밤이과도 소동적후는 계사가 시끄러워서 안되고 자정이 넘어서 계사내를 순회하면 발견하기 쉽다.

닭이 잠못자고 앓는 소리내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훌륭한 양계인이다.

3) 양계장 소독

계사소독이란 병원균을 모두 죽여 무균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의 발육억제 내지는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소독약에 절대 맹신 말고 청결 즉 물로 세척하는 작업을 우선 해야 소독수의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소독약은 짧은 시간(몇초)에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약이나 더러운 물, 찬물, 또는 오물이 섞인 물은 약의 역가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므로 오물제거→세척→건조→소독약의 순서를 필히 명심해야 한다.

(1) 소독발판

계사출입인의 신발과 피복에 미생물의 부착이 많으므로 소독저를 설치해야 한다.

- ① 소독약제조회사의 사용농도를 잘 지킨다.
- ② 신발에 오물(진흙)이 묻었으면 털거나 맑은 물에 일차 씻고 소독저에 담군다.
- ③ 장화의 발등까지 소독수가 닿도록 소독액을 채워준다.
- ④ 소독액을 2일에 한번씩 갈아준다.
- ⑤ 소독액을 교환시 반드시 소독저를 깨끗이 씻어낸다.
- ⑥ 가마니조각은 소독저에 담구지 않는 것이 좋다.
- ⑦ 겨울에 소독저를 얼리면 살균효력이 없다.

(2) 운동장 소독

운동장(평사)에는 콧수듬알(오씨스트), 기생충알, 기타 잡균이 깔려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실시한다.

- ① 사용하던 깔짚을 긁어내고 깊이 2~3cm 이상 표토를 반출하고 1m² 당 600~1200g의 생석회를 뿌린다.
 - ② 만일 표토를 반출 못할 경우에는 깔짚을 잘 긁어내고 생석회를 뿌린 다음 흙을 뒤집고 나서 또 생석회를 1m² 당 600~1200g을 뿌린다.
 - ③ 1년후에 사용할 운동장이라면 깔짚만 긁어내고 생석회를 뿌린 후 방지한다.
 - ④ 물론 반출된 깔짚이나 토양을 매몰처분하는 것이 좋다.
- 계분을 계사주위 과수원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단 묻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⑤ 외부기생충이 발생되었던 곳은 세번이나 마라 치운을 뿌려 재발생을 방지한다.
 - ⑥ 소독액의 살포는 운동장속독에는 효력이 없다.

(3) 계사 소독

계사소독은 오물제거→세척→건조→소독액

●양계 기초 관리●

살포—건조의 순서를 꼭 지켜야 한다.

- ① 사용한 모든 기구를 반출해 낸다.
- ② 모든 깔짚(왕겨, 톱밥, 짚)을 깨끗이 흡수낸다.
- ③ 물로 벽과 천장부터 세척하여 바닥을 솔로 닦으면서 청소한다.
- ④ 계사내부를 건조시킨 후 정확한 농도의 소독액으로 천장, 벽, 바닥을 짚게 고르게 살포한다.
- ⑤ 소독액의 온도가 50~60°C가 되도록 물을 데워서 사용하면 소독효과가 크다.
- ⑥ 만일 스팀클리너(steam cleaner)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80°C 이상 되어야 한다.
- ⑦ 소독된 계사의 약냄새가 다 빠지도록 창문을 개방한다.
- ⑧ 모든 소독은 닭의 입사 일주일전 완료해야 기관의 자극을 막는다.

- ⑨ 일단 소독된 계사의 출입은 통제한다.
- ⑩ 빈계사에 쥐가 많으므로 입추전에 쥐약을 살포해서 잡도록 한다.

(4) 기구 소독

금이기, 금수기에 곡시독알, 회충알 및 미생물의 부착에 많으므로 세밀히 청소를 해야한다.

- ① 뜨거운 비누물을 사용하여 계분을 솔로 닦아낸다.
- ② 물로 다시 깨끗이 씻어낸 후 소독액에 담구어서 소포지로 막아낸 후 말린다.
- ③ 주의할 것은 알카리성제제(양젓물)를 기구에 사용하면 기구를 파손시킨다.

(5) 계사주위 및 오물장소소독

계사주위는 비로 청소한 후 살충제(새민이나

알고 지나감시다

벼의 종류는?



1



2



3



4



5

1. **홀벚(Single Comb)**; 이 벚을 가진 대표적인 품종은 레그혼, 미노르카, 스페니쉬, 코친, 도킹, 랑산, 뉴햄프셔, 오픈턴, 나고야, 요꼬하마, 한국재래종 등이다.
2. **완두벚(Pea Comb)**;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브라마, 코니쉬등이 있으며 홀벚에 대해 단순우성이다.
3. **호두벚(Walnut Comb)**; 장미벚과 완두벚을 교배했을 때 인자의 호조작용으로 F₁에서 이 벚이 생긴다.

4. **장미벚(Rose Comb)**;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안코나, 레그혼, 미노르카, 도킹, 로드 아일랜드 레드, 와이안도트 등이다. 이 벚도 역시 홀벚에 대해 단순우성이다.
5. **털벚(Crest)**; 후단, 포리쉬, 실키종에서 볼 수 있으며 정상적인 벚에 대하여 불완전우성이다.
6. **무관(Bald)**; 이 벚은 홀벚에 대하여 단순열성이다. 벚이 없는 닭과 홀벚을 가진 닭을 교배시키면 중복형의 홀벚이 생긴다.

마라치온)을 살포한 후 생석회를 뿌리면 곤충 및 잡균의 서식을 억제할 수 있다.

계분이나 깔짚의 오물은 계사에서 먼곳에 매몰하여 두면 자체의 발효소독이 된다.

그러나 암모니아가스나 파리의 번식이 심한 오물장에는 크로르칼키(탈색분 5%) 용액을 덮으면 좋다.

4) 접종계획

접종은 닭에 가벼운 병을 주어 면역을 형성시키는 작업이므로 사전에 접종계획 및 접종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1) 산란계의 접종계획

주 령	2-3주령	8 주 령	6-10주령	21 주 령
접종약	N. C 비강 또는 을수종 접	N. C 생독 혹은 사독	계두 접종	N. C 사독 종

※ 21주령 후는 4개월마다 사독(N. C) 접종을 한다.

(2) 부로일러 접종계획

주 령	2-3주령	4-5주령
접종약	N. C 비강 또는 을수종	계두접종(1침)

※ 만일 뉴캐슬이 주위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4~5주령에서 계두를 접종하지 말고 뉴캐슬을 정한다.

(3) 접종시 주의사항

○약의 보관, 약의 사용량, 사용법 및 투약수

수를 정확히 지킨다.

○뉴캐슬 을수용(B₁)의 사용시는 샘플을 사용한다.

수도물사용시에는 물 1당 탈지유(분유) 5g 정도를 혼합한다.

○뉴캐슬 생독(B₁)을 물에 용해해서 오래 방치해두면 안된다.

○계두 접종시에 투관침에 약이 충분이 묻도록 한다.

○접종후 모든 사용기구를 깨끗이 소독하여 정돈해 둔다.

○접종자는 가운을 착용하거나 새옷으로 갈아입고 시작한다.

○을수용접종시는 아침에 투약하고 비강접종이나 사독접종(주사) 또는 계두접종은 밤에 실시한다.

○계두접종은 부로일러에서 1월~4월내 부화병아리에는 안해도 된다.

○접종시에 이동, 사료변경 및 부리절단과 같은 작업은 해서 안된다.

○산란초기에 또는 산란증가시에는 접종을 해서 안된다.

○접종 일주일전부터 계군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접종날자를 연기한다.

○접종당일에는 항스트레스제로서 영양제를 투여한다.

○접종후 7일간은 닭이 앓고 있으므로 주위환경을 안온하게 해준다. □□

※ 양계가의 영원한 친구 ※

월 간 양 계

1년분 : 1,500원

반년분 : 800원

서울 특별시 중구초동18-11

한 국 가 급 협 회

소액환을 등기로 보내주십시오